“실천 중심 봉사로 소외된 이웃들에 온기 전하고파”

임진란 삼학새마을금고 전무 목포시장 표창
32년 금융 외길…소외계층 복지 증진 앞장
10여년간 독거노인 반찬 배달·환경 개선도
공제사업 명예 멘토 등 지역 공동체 헌신



전날 목포시장 나눔 활동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실천 중심 봉사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에서 30년 넘게 금융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묵묵히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한 금융인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삼학새마을금고에 재직 중인 임진란(49·사진) 전무가 나눔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날 목포시장 나눔 활동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1994년 금고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해 온 임 전무의 이웃 사랑은 오랜 기간 묵묵히 이어져 왔다.

그는 용당2동 천사랑나눔봉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2015년부터 매월 한 차례씩 가족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독거노인 30여 가구를 찾아 ‘사랑의 반찬 배달’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살피고 일상생활의 안부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빨래 등 생활 밀착형 봉사를 펼치는 한편, 헌옷 경진대회, 어르신 미용 봉사, ‘사랑의 좀도리 운동’ 등 다방면에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임 전무의 헌신은 본업인 금융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다. 새마을금고가 단순 금융기관을 넘어 주민의 생활금융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공제사업 활성화에 앞장섰다.

그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표창을 3회 수상했고 2022년 12월에는 전남광주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공제 멘토 강사로 활동하며 전국 멘토 중 단 2명에게만 수여되는 명예멘토 ‘골드 명함’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밖에도 임 전무는 신안여성회 총무국장, 안좌향우회 기획국장, 안좌총동문회 홍보국장, 안좌여성회 재무차장, 안좌골프와 신안골프 총무 등 단체에서 중책을 맡아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임진란 전무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의 외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실천 중심의 봉사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직접 만든 소품 ‘플리마켓’ 열어 수익금 기부

동강대 간호학과 취미·창업 동아리
‘닥터 아나토미’ 사회적 가치 실천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 ‘닥터 아나토미(Dr. Anatomy)’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예비 간호사로서 따뜻한 인성을 기르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간호학과 취미·창업 동아리인 ‘닥터 아나토미’는 20여명의 회원이 평소 취미를 공유하고 매주 금요일 정기 모임을 통해 학업과 친목을 도모하며 대학 생활·학과 적응도를 높이고 있다.

‘닥터 아나토미’는 최근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닥터 아나토미 데이 및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1학기에 제작한 DIY 창작물 192점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선보였다. 휴대전화 비즈 스트랩과 비즈 팔찌 100여점, 캔버스 아크릴 그림 액자 20점, 손뜨개 가방, 미니 지갑, 수세미, 티코스터, 책갈피, 키홀더 등 크로셰 작품 72점을 내놓았다.

이날 이민숙 동강대 총장, 간호학과 교수 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행사장을 찾았고 주요 상품은 점심시간 이전 매진됐다.

‘닥터 아나토미’는 이날 수익금을 지역 사회와 나누기로 했다. 판매 수익금 50%를 물품으로 구매해 조만간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닥터 아나토미’는 창업 어플리케이션 ‘닥터 차팅(Doctor Charting)’을 홍보했다. ‘닥터 차팅’은 단순 의학용어 암기 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의 신규 간호사들을 위한 실무 차팅(임상기록) 통합 가이드다.

‘닥터 아나토미’는 교내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닥터 차팅’을 개발했다.

또 정부 창업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1차 관문을 통과하고 광주 북구청장배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는 등 창업 관련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명진 ‘닥터 아나토미’ 회장은 “강의 시간 외에 학과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든 취미 아이템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솔직히 놀랐다”며 “기쁘고 풍성한 마음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어 회원들과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목포 연동지사협, 어르신 생신축하 프로젝트

취약계층 18명 선물꾸러미·축하금 전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최근 저소득층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는 ‘내 생애 기쁜 날! 연(蓮)동네 어르신 생신축하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올해 3분기에 생신을 맞은 8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18명이 참석했다. 지사협 관계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케이크와 과일,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와 축하금 5만원을 전달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특히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트로트와 국악 공연이 더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연동지사협은 어르신 생신 축하 사업 외에도 사랑의 백미 나눔, 연꽃 작은도서관 아동 간식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백종욱 연동지사협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에게 위안과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온기를 전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미례 연동장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생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살피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해 복지 안전망을 만들겠다”고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산경찰·모범운전자회·경찰발전협, 겨울옷 나눔

광산경찰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들과 협력단체가 함께 모은 겨울옷 350벌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광산경찰서 전 직원과 모범운전자회 광산지회, 경찰발전협의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한 민·경 협력 활동으로 진행됐다.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경찰서 현관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외투와 파카, 점퍼 등 미사용 겨울 의류를 수거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협력단체 회원들의 정성이 더해지면서 총 350벌의 겨울옷을 모았다.

수거된 의류는 지난 1일 광산구 월곡2동 햇살어린이공원에서 열린 ‘겨울옷 무료 나눔 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됐다.

김회진 광산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장은 “직원들과 협력단체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치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북부경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긴급상황 대응 직원들 노고 격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전날 제69주년 ‘112의 날’을 맞아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밝혔다.

이번 행사는 24시간 시민 안전을 위해 112신고 접수·지령과 긴급상황 대응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백승 북부경찰서장과 112상황실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신고 대응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금 전달이 이뤄졌다.

양 서장은 각종 긴급신고와 돌발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112상황실이 치안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부경찰은 앞으로도 112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윤찬웅 기자



구례군, ‘정신건강의 날’ 자살 예방 캠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3일 “최근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열린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걷기 행사와 연계해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마음 마주하기, 함께 걷는 길’을 주제로 자신의 마음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의 마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생명존중 수건 퍼포먼스와 생명사랑 구호 제창, 자살예방·정신건강 인식개선 배너 전시, 홍보 피켓을 활용한 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군은 자살 예방 상담전화(109)와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등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자살 예방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먼저 안부를 묻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군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생명존중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전남광주교육청 박은정 장학사
제29회 공직문학상 詩부문 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3일 “중등특수교육과 박은정(사진) 장학사가 제29회 공직문학상 시 부문 은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직문학상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주관하는 공직자 대상 문학 공모전이다. 올해는 시·시조·수필·단편소설·동시·동화 등 8개 부문에 총 2천51편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4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은정 장학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문학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며 “일상에서 만나는 소중한 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문학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신안소방서 ‘불조심 강조의달’ 캠페인

신안소방서는 최근 제79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신안군 암태면 남강선착장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불 혹시는 예방을, 설마는 재앙을 부른다’는 슬로건 아래 겨울철 화재 위험 시기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상민 신안소방서장은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은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작은 관심으로 화재 없는 안전한 신안군을 만드는 데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안=양훈 기자



담양봉산면지사協, 무자녀 어르신 생신 축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봉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최근 자녀가 없는 지역 어르신 6명을 초청해 무자녀 어르신 생신 초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봉산면 특화사업으로 자녀가 없는 어르신들의 생신을 함께 축하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해 시작됐다.

진철 봉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어르신들의 생신을 함께 축하하고 안부를 살필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소외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경찰청, 교통사고 예방 집중단속

광주경찰청은 3일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암행순찰대·교통순찰대·기동대 등을 투입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고령보행자 무단횡단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윤시연 암행순찰대 팀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와 고령보행자 안전의식 향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